

F.OUND

PEOPLE & CONTEMPORARY LIFESTYLE

ISSUE
#45
05
MAY
2014

Cover Story

KIM, SUNGRYOUNG

People

TOKIMONSTA

UBARE

ZITTEN

KIM, SUNGEUN &

PARK, SOOJIN

RUN RIVER NORTH

Specia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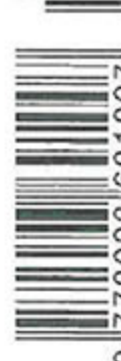
FLEA MARKET

Fantastic CD Inside



www.foundmag.co.kr
ISSN 2093-6915
5000 Won

05



9 772093 691007

Yeondoo Jung

Spotlight

editor_양열매 image_삼성미술관 플라토



01 영웅, C-print, 135×180.7cm, 1998
 02 상록타워, 32 Photographs, 80×55cm, 2001
 03 크레용팝 스페셜, Media Installation with Performance and Sound, 2014



정연두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마주한 건 '식스 포인트'를 통해서였다. 뉴욕에 있는 이주민족 구역인 식스 포인트(Six Points)를 사진으로 찍어 정교하게 붙여 영상화한 작품이 '식스 포인트'다. 영문 간판 사이로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특징이 압축된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그는 이 거리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을 찍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레이션을 넣었다. 행인에 지나지 않는 인물에 오히려 관심을 쏟았다. 이곳저곳의 전시에서 만난 그의 작품들은 모두 스쳐 지나갈 법한 인물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을 스포트라이트 받게끔 만드는 능력을 지녔다.

그의 첫 작품인 '영웅'부터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한 '크레용팝 스페셜'까지, 이러한 특징이 담긴 그의 작품이 삼성미술관 플라토에 한데 모였다. '영웅'은 삼선슬리퍼를 신고 짜장면 배달을 하는 이를 담아낸 사진 작품이다.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집 배달원을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도는 순간만큼은 액션 배우 같은 자태를 뽐내는 그를 작가는 영웅이라 칭했다. 점점 심오해지는 현대미술 안에서 오히려 정공법으로 주제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게 한 그의 초기 작품은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다. 임대아파트 상록타워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낸 '상록타워'도 마찬가지다. 성냥갑 같은 똑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가장 화목한 모습을 연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집도 똑같은 집이 없었다. 작가는 그들의 눈높이로 상록타워 주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데에 충실했다. 2014년 새롭게 작업한 '크레용팝

스페셜'은 대중문화의 그 이면에 놓인 인물 중에서 크레용팝 열풍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팝저씨(크레용팝을 좋아하는 아저씨의 줄임말)를 조명했다. 특히 팝저씨가 크레용팝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계속 상영되는데 의외로 무척 재미있다. 평범한 아저씨들이 추리닝으로 갈아입자 위풍당당한 팝저씨로 변신한다. 스케일은 비교가 안되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히어로물을 보는 기분이다.

형형색색의 추리닝을 입고 크레용팝을 목청껏 외쳐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로 비하될 수 있기 충분한 소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귀여운 팝저씨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저씨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팝저씨들과 같은 연령대인 작가는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사회적 맥락에서 지위로 평가 받는 이 시대의

아저씨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는 듯 했다. 이처럼 팝저씨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과 팝저씨들의 떼창은 플라토를 가득 메웠고 그들은 그렇게 전시의 주인공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플라토가 이렇게 유쾌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목격한 플라토의 공기가 정연두 작가의 작품으로 한층 가벼워졌다. 전시는 6월 8일까지 계속된다. [E]

